

## 8 인터뷰-(전)교정본부장 김학성 동문(법학 85)



26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원칙'이었습니다.

(사진=정성희 기자)

# “원칙대로 중립을 지키는 것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일”

정성희 기자 keykeys923@knu.ac.kr  
박희원 기자 rxxtxfjxy@knu.ac.kr

# 대화는 함께 살아가는 타인을 이해하는 좋은 방식임과 동시에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신문은 각 분야에 진출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바쁜 일상을 살아가던 나 자신과 마주 보려고 합니다. 26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김학성 동문(법학 85)을 만나 그가 지켜온 삶의 태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이 한눈에 보이던 로펌의 한 회의실에서 김학성 동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동문은 26살 때 5급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1급 관리관인 교정본부장까지 오르기까지 원칙을 중요시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정본부장 재직 시절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김동문은 대립

하는 의견 속에 중심을 지키며 정의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교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26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 짓고 대한민국 6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으로 교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인생은 때와 운명을 따라

김동문에게 공직 생활은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법학과의 대부분 학생이 그러하듯이 김동문 또한 사법고시 합격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도전에도 합격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당시 행정고시 1차 합격이 군대를 유예할 수 있다는 얘기를 우연히 듣고 행정고시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그런 이유로 보게 된 행정고시에 1차 합격을 하게 되고, 그해에 2차도 합격해 계획에 없었던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며 뜻하지 않았던 기회가 운명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운명적인 공직 생활의 바탕에는 우리학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김동문은 대학 시절 자기 모습을 “때에 맞춰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김동문은 당시 법학과가 본관에 있었던 것을 언급하며 동기들과 본관 계단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저학년 때는 학생 운동에 참여하거나 학생회장 활동을 하는 등 학교생활을 즐기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 데 집중했다”며 “하지만 취업과 진로의 확신이 필요한 고학년부터는 학업에 충실히 임하여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며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덧붙여 “대학이라는 때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미래의 큰 자산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 공직생활의 키워드는 ‘원칙’

26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김동문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원칙이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였던 그는 “그때마다 쉽지 않았지만, 원칙에 따라 행동했다”

고운을 뗐습니다. 전 대통령들이 구금돼 있던 교정본부장 시절 그는 “큰 주목을 받는 이슈에 ‘원칙과 규정’을 지키며 처리하려고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큰 사고 없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난무했던 당시에 원칙대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자신의 욕심을 채워 주목받으려 하기보다는 눈에 띄지 않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교정 본부장으로서 임기를 다 마친 김동문은 현재 법원에서 교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동문은 “범죄자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화시켜 재범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며”며 “그들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 교화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일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0년 뒤의 모습에 대한 질문에 “공직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나 새로운 도전이 막설여지기는 한다”며 “군대를 한 번 경험해보고 다시 가는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것과 차별이지 않느냐”고 유쾌하게 대답했습니다.

###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라

행정고시의 난이도라는 장벽 때문에 도전조차 하기 꺼리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동문은 이러한 후배들을 위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충분한 능력이 되는 데도 지원조차 안 한다는 소식에 많이 안타까웠다”며 “안될 것 같다며 포기하는 것보다 꿈과 이상을 크게 가지고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기회의 순간을 기대하며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김동문은 “실패나 좌절의 순간에도 이에 굴복하지 않고 이 또한 운명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과거의 일에 얹매이거나 좌절하지 않고 바뀌어버린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서 살아갈 것을 전했습니다.